

영문 암송대회

국제포교사회 1월 23일

어린이·청소년들의 불교와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추는 영문 암송대회가 개최된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박상필)는 2010년 1월 23일 '제 3회 영문 <자타카(Jataka)> 암송대회'를 실시한다.

암송대회는 국제포교사회 홈페이지(www.idia.or.kr)에 게재된 5가지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외국인 스님, 국제포교사 등이 심사하며 표현력, 전달력, 발음, 태도 및 협동력 등을 심사기준으로 본다. 참가는 초·중등생으로 개인 혹은 2명이 한 팀으로 참가가능하다. 참가신청은 2010년 1월 5일까지 인터넷(lipogyo@buddhism)이나 팩스(02-722-2203)로 하면 된다. 예선은 1월 9일 실시한다.

이날 행사에는 부처님 일생과 불교에 대한 quiz 상식을 중심으로 하는 퀴즈 등의 레크리에이션도 함께 진행된다.

박상필 회장은 "암송대회를 통해 부처님의 전생에 대해 보다 깊게 공부하고 영어 실력도 향상 될 것"이라고 전했다. (02)722-2206

이상언 기자

‘동지, 나눔의 날’ 팔죽에 사랑 솔솔

조계사·종신회·봉은사·명락사 등 자비나눔 실천해

일 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동지(冬至).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동지를 '작은 설' (兒歲)이라고 해 팔죽을 이웃과 쉼 먹으며 액운을 털고 새해를 맞이했다.

사람에서도 동지는 여름결제(結夏), 여름해제(解夏), 연초와 함께 총림 4월이라 해 중시 여겨왔다. 동지 날이면 동지법회를 열고 팔죽 공양을 하고 동지 전날 밤은 '동야(冬夜)'라고 해 연말연시를 맞아 은사 스님이나 스승님을 찾아뵙고, 그동안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풍습도 있어왔다.

또 불자들에게 팔죽은 어둠을 밝히는 지혜와 광명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의미가 컸다.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인다(遠禍召福)'는 민간 신앙을 넘어 동짓날에는 이웃과 팔죽을 나누며 지난해를 참회하고 희망찬 새해를 서원해왔다.

최근 불교계는 동지를 단순한 민간 풍습을 넘어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새로운 문화 풍토로 정착시키고 있다. 12월 22일 동지를 맞아 전국 사찰과 불교계 단체에서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전통문화알리기,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등으로 동지를 보내고 있다.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 02-732-2183)는 21일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직지사 스님과 신도들이 12월 15일 김천역 광장에서 지나가는 시민과 인근 시장 상인들에게 팔죽을 나눠주고 있다.

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떡과 차를 돌리며 '정(情)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동짓날인 22일에는 12월 초부터 팔과 찹쌀을 판매한 수익금과 신도회 사회기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불 400채(1600여 만원)를 지원, 서울지방경찰청·종로경찰서 전·의경들에게 겹라면 간식 1600여 인분(160만원)을 보시했다. 또 이날 점심시간 1시간 동안에는 인사동 일대에서 조계사 신도와 인근 시민과 직장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4500여 인분의 팔죽을 제공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02-733-7277)와 산하기관 단체들은 19일 인사동 북인사마당(북광장)에서 '밝은 기운 가득한 작은설 동지'를 주제로 지신밧기, 소원지 태

우기, 팽뿌리기, 팔죽 나누기 행사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행사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 02-3218-4821)는 22일 동지기도를 시작으로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위한 교복과 내의 지원을 위한 지혜의 동전모으기, 새해맞이 서원지 행사를 진행한다. 본 행사는 31일 봉은사 송년의 밤과 함께 진행된다.

서울 명락사(주지 무원, 02-873-3405)는 22일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한국전통음식문화체험으로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팔죽만들기를 실시하고, 참가자들에게는 김치를 전달했다.

의왕 정계사(주지 성행, 031-

426-2348)는 21일 의왕시와 성남 지역에서 2500여 명분의 팔죽을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장애인재활작업장, 보육원 등에 나누는 무차기 도법회를 봉행했다.

비단고을지혜나눔사회(대표 원광·심향사 주지, 061-334-2880)는 나주 심향사와 함께 21~22일 동지를 맞아 '잊혀져가는 전통의 맛' 팔죽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행사에는 다문화가정 및 군부대, 소방서 및 경찰서 등에 동지 팔죽을 전달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팔죽을 먹으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에 앞서 장성 백양사(주지 시봉) 불교대학은 12월 13일 백양사 상가 변영회 후원으로 지역 기초수급자 대부분이 노인인 장수군 북하면에 700인분 팔죽을 28곳 마을·노인회관에 포장 배달했다. 특히 백양사 강원 확신스님들이 팔죽 보시 울력에 동참해 더욱 의미가 컸다.

김천 직지사(주지 성웅)와 김천사암연합회는 15일 김천역 광장에서 '김천시민과 함께하는 동지맞이 자비나눔 팔죽공양' 행사를 진행했다. 성웅 스님과 신도들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광장 시민들과 인근 시장 상인들에게 팔죽을 나눠주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이상언 기자·손범현 대구지사장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어르신 편안하세요?”

군중교구·성보회 파라밀 요양원 위문



군중교구장 자광 스님(오른쪽)과 각원 스님, 성보회 불자들이 어르신 생일잔치를 열어 흥겹게 축하하고 있다.

군중특별교구 교구장 자광 스님을 비롯한 군중교구 관계자들과 불자장성 부인회 '성보회'는 12월 11일 연말을 맞아 노인전문요양시설 안성 연꽃마을 파라밀 요양원을 방문해 자비행을 펼쳤다.

성보회 소속 20여 회원들은 생일을 맞은 어르신들을 위해 생일잔치를 여는 한편 연꽃마을 이사장 각원 스님과 요양원 시설을 견학하고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한편, 군중교구는 11일 호국 원광사에서 2010년도 군승 43기 파송요원 평가 및 2009년도 요원 응시자 평가를 진행했다. 2010년도 국방부 안성 연꽃마을 파라밀 요양원을 방문하기 위한 이번 평가에서는 군중교구 국장 스님들을 비롯한 심사위원 6인이 지원자들의 기본설법과 제의식 실수 등 교리 및 의식 집전과 가치관 등을 평가했다.

노덕현 기자

신행거시판

●일주일 철야용맹정진=서울 성북구 정릉동 보림사 보림선원 선방에서는 12월 28일 오후 8시부터 2010년 1월 3일(일) 오전 7시까지 일주일 철야용맹정진을 개최한다. 철야정진은 거사 선종을 일으킨 백범 거사의 테이프 법문을 들으며 진행한다. 참선복과 간단한 세면도구를 준비하면 된다.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9만원. (010)6332-4096

●청소년 겨울수련법회=성주도출암은 2010년 1월 1~3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겨울수련법회를 진행한다. 불경 암송(한글 반야심경), 도량 가꾸기, 사불(寫佛)과 이야기, 법구 암송대회, 산속에서 즐기는 전래 놀이 등 깊은 산사에서만 체험할 수 있

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참가신청은 12월 25일까지이며 참가비는 3만 5000원. (054)931-0175

●영어담마스쿨 겨울특강=비로자나국제선원은 2010년 1월 4일부터 성인 영어담마스쿨 겨울특강을 1개월 진행한다. 강의는 월, 수, 금 진행된다. 3일부터는 원어민과 함께하는 '대학생 영어담마스쿨'을, 9일 오후 3시부터는 어린이영어담마스쿨을 진행한다. 그밖에 매주 일요일 영어일요침선,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토론, 초기불전강독 '영어 니까야' 등을 진행한다. 한편, 2~3일 경기도 용인 법주사에서 중·고등학생 겨울 캠프를 실시한다. (02)6012-1731 cafe.daum.net/cosmicbuddha

양천경찰서 법당개원

성민 스님 등 경승 활동

전국에서 불자 경찰들이 가장 많은 곳 양천경찰서에 법당이 마련됐다.

양천경찰서 경승실(실장 성민)은 12월 12일 법당개원 법회를 봉행했다. 양천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법회는 조계종 포교부장 계성 스님,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중앙총회의원 정범 스님을 비롯해 정은식 서장 등 경찰 간부 등 양불회 불자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양천경찰서는 9월 경승실장에 서울 장안사 주지 성민 스님을 위촉했다. 이상언 기자

첫 발 떼고 본격 가동 '부릉'

한이사불자련 15일 첫 정기법회 봉행

10월 창립된 한이사불자연합회(회장 이수완) 첫 정기법회가 봉행됐다.

12월 15일 조계사 극락전에서 진행된 이날 법회는 조계종 포교연구실 연구원 문각 스님의 집전아래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법하게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회장 인사말, <금강경> 독송, 사홍서원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수완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8월 15일 발기대회, 창립기념법회에 이어 첫 정기법회를 봉행하는 뜻 깊

은 자리"라며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많은 이들이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30여 분간 진행된 <금강경> 독송까지 법회를 마치고 이 회장은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오늘은 첫 법회인 만큼 시범적인 자리였다. 몇 차례 법회를 진행하고 지도법사를 초청 하는 등 법회의 틀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이사불자연합회는 매달 셋째주 화요일 저녁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이상언 기자

'부처님' 색다르게 토론한다

실상사 1월 4~9일 재가불자 겨울학림 개최

지리산 실상사에서 불교에 대한 올바른 안목과 심신을 증장시키기 위한 이색 겨울 수련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실상사(주지 재연)는 올해에 이어 2010년 1월 4~9일 출가 수행자와 재가 대중들이 함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삶을 되돌아보는 재가불자 겨울학림을 개최한다.

제2회 겨울학림은 교재 <혁명가 붓다>(DJ 갈루파파나 지음, 재연스님 역, 도서출판 숲), <내가 본 부처>(도법 스님 지음, 도서출판 호미)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토론과 강좌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또 상경례, 간경 등 사찰에서의 공부방법대로 진행함과 동시에 '생명평화 100대 서원'의 뜻을 음미하고 상기하는 절 명상, 주교재 역사인 재연·도법 스님과 만남의 시간, 율력, 자율 수행, 새벽·저녁 예불, 발우공양, 다담, 자체 논강, 수계식 등도 함께 마련했다.

12월 30일까지 성인남녀 20명 선착순 접수받는다. 참가비는 25만원이다. (063)636-3191, www.silsangsa.or.kr

이상언 기자

## 전통불교천지대왕종

###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 卍 ○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철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발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끈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인 석연 대종사께서 전범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흥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도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중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엮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리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회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발,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중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 입중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장 불탑사 의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원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중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